

1978년 창립...정회원 2천여명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는 1978년 3월 30여명의 환경보호관련 과학자들과 오염방지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했다. 창립 이듬해부터 학회지를 발간한 대한환경공학회는 현재 정회원이 2천여명을 상회하는 학문집단으로 정착했다. 기획·편집·사업실행·국제·홍보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학회의 활동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학회는 매년 봄·가을 2회로 나눠 학회 및 논문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학회지는 월간으로, 영문학회지는 연4회 발간하고 있다.



柳明辰
(대한환경공학회장)

50년대 탄생한 '環境工學'

환경오염, 환경파괴 현상의 영향은 실로 파괴적이고 방대하다. 오염된 대기를 흡입하여 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상은 차치하고라도,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식량으로 먹을 수 없게 되고 대기,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우리의 모든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생산자재인 목재, 고무, 물, 광물 외 많은 유

기물들의 생산이 불가능해지든가 또는 양적으로 격감하게 되어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된다.

1950년을 즈음하여 세계인들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이 창안하여 탄생시킨 학문 영역이 바로 환경공학(環境工學, Environmental Engineering)이다. 자연 환경공학은 자연계 구조론적 변화에서, 처리공학, 생산공학, 인문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 인류 생활의 전반적 활동영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대한환경공학회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 문화산업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창립한 학회이다.

91년 법인 등록...학회지 발간

60년대 중반기를 넘어 한국 사회의 여건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는 바 그것은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당시의 박정희대통령에 의해 경제개발정책, 공업입국(工業立國)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각처에 많은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권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여 환경오염의 서막을 올렸다. 이른바 개발우선정책이 정부에 의해 과감하게 추진되었고 환경보전정책은 거의 뒷전에 밀려버렸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산천(山川)의 오염, 환경오염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환경을 논할 여건은 전혀 아니었다.

대한환경공학회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사회여건에서 환경보호에 뜻을 두었던 몇몇 학자, 방지 시공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1978년 3월 25일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서는 김동민박사가 추대되었고 9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9년 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매년 춘·추 2회의 학술발표회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었다. 이어 조광명(인하대), 신응배(한양대), 박영규(영남대), 김동윤(부산대), 김환기(전북대) 등 제 석학들이 회장직을 계승, 성심껏 학회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역대 많은 사계의 권위자들이 업무를 분할·봉사한 결과 이제 세계적인 학회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5개 전문위 중심 운영

회장은 모든 회무를 통합 관장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수시로 원로 고문들의 자문을 받으며 중요사항은 이사회와 협의 그 결정에 따른다.



▲ 대한환경공학회 총회

각 회원에 대한 봉사를 위시하여 사무는 총무이사가 통합 관장하고 학회업무 및 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5개 전문위원회(기획, 편집, 사업실행, 국제, 홍보)를 두고 5명의 부회장단을 위촉 각 위원회의 회무를 맡아 책임지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회의 모든 활동과 업무는 이 전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지방회원들의 활성화를 위해 지부, 분회가 결성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주요 활동상황을 각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획위원회 ... 학회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학회 활성화에 필요한 진취적 사업 및 활동영역을 도출·검토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환경공학 기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등의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에 공헌도가 큰 현장을 찾아 견학과 시찰을 추천한다.

매년 춘계, 추계 2회 개최하는 학회 및 논문발표회를 주관하는 일이 이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주요 사업의 하나이다.

△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이 주 업무이다. 현재 국문, 영문학회지 및 회보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바 국문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는 연 12회, 영문 학회지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는 연 4회, 회보는 수시로 발간되고 있다.

△ 사업실행위원회 ...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환경공학 기술에 관한 기준 및 용어제정 및 각종 연구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이다. 학회로 답지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문의에 대하여 회원들 중에서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줌으로써 실질적 환경기술개발 및 처리실무를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 시방서 및 용어제정 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며 많은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수행 중에 있다.

△ 국제위원회 ...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다. 나라마다 자원의 분포, 산업, 국가 경영정책, 환경조건 등이 다르고 부각되는 환경문제 및 해결방안도 다르다. 따라서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연구결과 및 축적된 지식들을 상호교환하고 토의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문제점 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 도입할 수 있다.

우리 학회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각국 학자와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외국의 저명학자 초청강연, 학회간 상호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일본의 저명한 '수 환경학회'와 교류사업을 추진

하여 97년에 일본을 방문, 우리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였으며 금년에는 일본의 학자들이 대거 춘계학회에 참석,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우리 회원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홍보위원회 ... 학회내에서 이루어진 회원들의 조사연구 결과는 활용되지 않으면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학술활동의 결과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또 사회에 활성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되어야 한다. 홍보위원회는 이 점에 착안,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 사회에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헌이 큰 회원을 선발 표창, 격려하기도 하고 유망한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수여하여 훌륭한 환경공학도가 되어주기를 격려하기도 한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주력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해마다 오염, 파괴현상은 증가일로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도 위기상황에 가깝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생존과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연구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하게 하고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학회는 앞으로 국제교류를 좀더 활성화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활발한 산학협동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기술 도서를 발간하여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환경보존 능력을 제고(提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사회의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㉞